

터키, 은행산업 정리 막바지에

터키 정부는 주요 은행에 공적자금 5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7일에 터키 의회가 통과시킨 은행산업 구제 조치에 따른 이 계획의 재원은 올해 2월에 IMF가 승인한 120억 달러의 차관자금이다.

터키 경제는 2000년 11월에 1차 위기, 2001년 2월에 2차 위기를 겪으면서 리라화 환율은 폭등하였고 대출금리도 폭등하였으며 초인플레이션도 계속되었다. 이 위기의 가운데에 은행산업이 놓여있다. 현재 대부분의 터키 은행들은 이익 감소, 부실대출 증가, 과도한 관계회사 대출에 따른 유동성 악화 등에 고전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 2월에 관리환율제도가 변동환율제도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환율 폭등 때문에 외화차입을 이용한 국내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지난 1년간 터키 리라화 환율은 미 달러화에 대해 두 배로 상승하였다.

자기자본적합률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유동성 지원

2월에 IMF로 제출한 의향서(letter of intent)에서 터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모든 은행의 자기자본적합률(capital adequacy ratio)을 8% 이상으로 맞출 것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자기자본적합률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는 자금지원 대상 은행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두 개의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차례로 대출손실과 자기자본적합률을 파악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은행감독청(Banking Regulation and Supervision Agency)이 다시 검사를 하게 된다. 이 세 차례에 걸친 감사가 다 끝나는 5월에야 각 은행들의 대차대조표 공표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적합률 2%가 생존의 최소조건

은행감독청장은 자기자본적합률이 1~2%에 불과한 은행은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의 은행에는 유동성 보충을 위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이 있게 된다.

정부자금 투입 대상은행은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점유율이 1% 이상이어야 하며, 자기자본적합률에 따라 두 종류로 갈라진다. 우선 자기자본적합률이 2~5%인

은행은 소유주가 상응하는 자본을 투입할 경우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해당 은행이 약정된 기일까지 정부가 지원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정부는 미상환자금에 상응하는 지분을 소유한다. 결국 은행의 소유주는 은행의 소유권을 유지하려면 비은행 자산을 처분하여 은행에 투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민간은행들은 영향력이 크고 부유한 산업자본가들의 손에 들어가 있다.

한편 자기자본적합률이 5~8%인 은행은 외화나 국채로 저리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자금은 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터키은행협회가 수립하고 있는 계획에 따르면 두 종류의 지원 모두 지원자금의 60%가 결국 재정상태가 어려운 기업들에게 흘러가게 된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240개의 대기업이 은행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결국 다른 수천 개의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파산할 것으로 보인다.

독립회계감사의 결과가 관심의 초점

터키 최대의 민간은행들도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Turkiye Garanti Bankasi, Dis Ticaret Bankasi는 자기자본적합률이 5%를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각 은행의 주장은 다른데, Dis는 자기자본적합률이 12.8%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수 차례 터키 최우수 민간은행으로 선정되었던 Garanti는 과거의 공격적인 성장전략 때문에 2000년 말경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부터 가장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평이다.

한편 Yapi ve Kredi Bankasi나 Turkiye Is Bankasi는 Garanti보다 자기자본적합률이 높지만 부실대출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Yapi의 경우 부실대출은 2001년 1/4분기에 총대출의 5.2%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대형 은행들의 평균인 3.7%를 크게 초과한다.

그러나 독립회계감사와 은행감독청의 검사를 통해 은행들이 지금까지 추정되어온 것보다 훨씬 나쁜 상태라고 밝혀지는 경우 국민의 신뢰 하락과 함께 정부의 은행 지원계획에도 지원 규모나 대상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 정부의 금융개혁 수행에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터키의 은행 수는 합병이나 청산으로 인해 2000년 말의 79개로부터 2002년

1월 17일 현재 61개로 줄었다. 외국은행들은 터키 은행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그리이스의 Nova Bank가 부실은행들을 인수한 중앙은행의 저축예금보험기금으로부터 Sitebank를 3천 5백만 달러에 인수하였다. 반면에 작년부터 Finansbank와 지분 51% 인수를 놓고 협상하던 프랑스의 BNP Paribas는 인수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수를 포기하였다.